

2010 풀 프로그램

풀 스쿨 pool school

문의 및 신청 poolschool2010@gmail.com
블로그 http://poolschool2010.blogspot.com

시각세미나 - 근대적 주체와 사진 아카이브
Seminar on Perspectives - Modern Subjects
and Photographic Archives
07. 10 - 08. 07 매주 토 오후 3시 (총 5강)
강사_이경민 (사진아카이브연구소 연구원)

이론강독 - 지적읽기: 너의 지적을 즐겨라
Reading Theory
- Reading Zizek: Enjoy Your Zizek
09. 04 - 11. 06 매주 토 오후 3시 (총 10강)
강사_민승기 (경희대 영어학부 겸임교수)

시각세미나 - 송고, 전통, 아시안 고딕
Seminar on Perspectives - Asian Gothic
10. 08 - 11. 05 매주 금 오후 7시 (총 5강)
강사_박찬경 (작가)

수강료_1강 1만5천원
세션별 10강 15만원 / 5강 7만5천원

풀 국제교류 프로그램 "횡단" pool international program "Transversal"

믹스라이스의 '믹스터미널'
(마석-카이로-서울)
'Mixerterminal' by Mixrice
(Maseok - Cairo - Seoul)
07. 19 - 10 (3개월)
_블로그 릴레이 시리즈 '연관된 잡동사니
Connected Odds & Ends (working title)
'_대화 시리즈 '고향에 두고 온 것
something that i can't leave behind'
(카이로 현지 타운하우스 갤러리 레지던시)

풀 퍼블릭 pool public
살롱 - 작업의 화두 #3
_방치된 제안들 Proposals in Stock
05. 18~ 격주 화요일 7시(총 10회 예정)
장소_골풀(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683-31)
문의 및 신청 project-cp@hotmail.com
프로젝트 카페 http://cafe.naver.com/projectox

꿀풀 ccuull pool(Honey Grass)
2010.04.15 - 09.30
17기 초대작가 : 권운주, 김상돈, 김상진, 김홍빈,
윤지현, 이수성, 임정규
새 친구들 : Rhiem Alkathi, 남상수

지난 프로그램 past programs
Special Lectures | 라원식, 최정화
생활과 미술이 만들어내는 말과 이미지,
아름다움과 힘
La Won-sik, Choi Jeong-hwa: The Beauty,
Power, Image and Word Produced by Life & Art
06.27 일 오후 3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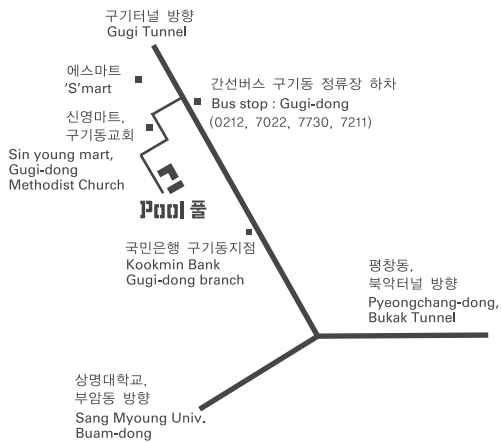
Special Lectures II
한국근현대미술의 다른 얼굴 : 한국전쟁기
미술인조직
Another Face of Korean Modern Art History :
Artists Organizations during Korean War
강사_조은정
07.03 토 오후 5시
살롱-작업의 화두 #5_상냥한 그대: 무형의 저항,
명백한 고집
Gentle Thee: Intangible Resistance, Palpable
Rigor
07.11 일 오후 3시

온라인 풀 스폿
online pool spot on www.altpool.org
"나는 너를 놓지 않는다 : 이제 / 이슴 I don't let
you down : Lee Je / Aesop" 전시 동영상

*풀 프로그램 동영상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풀 회원 pool membership
풀은 미술인들이 주인 되는 미술기관
모형을 지켜가고자합니다. 풀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행보에 함께 하여주시길 분들을
기다리겠습니다.

*풀 회원 관련 문의 및 신청서 접수
poolmembers@altpool.org



2005년 풀에서는 "돈"이라는 제목 하에 자본을 비판적으로 탐색하는 주제기획전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5년이 지난 2010년 우리는 돈과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날 돈이 만드는 억압 기제는 더욱 치밀해져 시장과 제도의 틈을 타고 우리에게 다가와 삶을 살아보고 만들어가는 방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꿈꾸는 무엇을 실현하거나 어떤 감동을 받기 위해서는 돈을 지불할 것을 개개인에게 명령하고 있는 장면을 생활 속에서 발견하거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처럼 돈에 의해 소비주체임을 끊임없이 명령 받는 가운데 개인은 살아남고자 하루하루를 힘겹게 싸워나갑니다. 작가 또한 이 세계의 한 작중화자로서 돈과 작업 사이에서 생존해야 하는 일상이라는 테제에 직면해있습니다. 청자와 소통하지 못하고 시장과 제도에 의해 잘려나가거나 구겨져 방치되는 작업들이 우리 옆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돈에 의해 창작이 생산되고 거래되는 상황에서 작가가 진정한 창작주체이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그 스스로가 생각하는 작업 혹은 이미지의 연결고리를 밝혀내어 현실로 고집어 낼 수 있을까요? 본 프로젝트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왜 만화인가"라는 다른 질문으로 바꿔놓고자 합니다.

만화가 스코트 맥클라우드(Scott McCloud)는 그의 저서 '만화의 이해'에서 "불완전한 세계에서 살아가려면 연상(closure)을 안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연상으로 번역된 클로저closure라는 단어는 '닫다, (눈을) 감다'라는 원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 앞의 과부화된 순간 전원을 껐다 다시 켜 보는 리부팅(rebooting), 생략, 절연, 절단, 반강, 휴지, 침이 벌어지며 세계의 장면은 전환됩니다. 이 지점이 완성과 돈 사이에서 작중화자를 짓누르는 무거움으로부터 벗어나 이미지와 언어가 생산되는 지점, 이야기가 벌어지는 순간입니다. 또한 만화라는 작업은 이미지와 이야기가 중첩되면서 생산되는 장면의 벌어짐, 시간차, 확대, 축소, 분절 등의 작용현상을 칸칸이 동시적으로 드러냅니다. 만화가 매혹적이려면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눈을 깜빡이는 순간 파편들이 순환하며 일을 꾸미는 힘, 다시 말해 비이성적이고 비언어적 연상이 이뤄지게끔 하는 운동성일 것 입니다.

우리는 만화에서 종종 등장인물로 등장하는 만화가를 만납니다. 만화라는 형식 안에서 그들은 자신의 작가로서의 고민이나 사적인 이야기를 스스로없이 시대적 혹은 사회적 발화와 중첩시킵니다. 자기고백과 세계관적 통찰을 넘나드는 이러한 이야기의 연쇄는 단선적인 이미지의 충돌을 넘어서서 현실과 작가 자신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시각을 드러내며, 돈의 거대함을 대하는 작가로서의 소소하면서도 폐부를 찌르는 발언과 저항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만약 만화와 미술작업이 무엇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는 파편화된 혹은 불통적 사건들이 지배하는 오늘에 대해 발언하는 언어가 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돈의 호명에서 자유롭고자 하는 현실주의적 상상력의 원천일 것입니다. 따라서 본 프로젝트는 "작가의 돈"을 테마로, 또한 돈의 가장자리에서 외로운 창작의 마력을 덧붙여 조각난 이미지의 균열을 촉발하는 만화를 하나의 통로(Passage)로 하여, 이미지와 이야기가 만들 수 있는 구성적 관점에서의 흥미진진한 생산작업을 다시 발견해내고자 합니다.

워크숍 프로그램

연상을 이용하여 조각난 파편을 전체로 만드는 기술인 만화는 퍼즐을 맞춰 나가는 존재인 독자와의 연속적이고 입체적인 소통이 아주 중요합니다. 따라서 본 프로젝트에서는 관객과 만화가, 미술작가, 이론가가 현장에서 함께하는 워크숍을 동반합니다. 워크숍 프로그램은 초대된 만화가가 탐구해온 각각의 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만화가와의 대담 및 제작 워크숍을 동반한 만화 공방, 어린이들과 함께 만화 밖 현실로 나가보는 사생 소풍, 만화가와의 대화, 만화비평 토크 프로그램 등과 같은 현장 활동으로 이루어지며, 프로젝트 공간은 이들의 무대가 되어 한 달 동안 초대 작가가 그들의 작업과 관객과의 관계를 확장시켜가는 비정형의 이야기를 담게 될 것입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됩니다. www.altpool.org

만화가와의 대담 - 이희재

한국 리얼리즘 만화의 스승 이희재 선생님을 모시고 현실을 반영하는 만화의 태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며 이희재 선생님의 궤적을 중심으로 이 시대 풍경 속에서 작가가 배워야 할 모습들을 찾아봅니다.

만화가 공방 & 작은 콘서트 - 앙꼬

만화가와 돈, 현실과 돈이라는 지점을 드러내는 만화제작과정과 작가로서 주변의 풍경을 보는 그녀의 태도에 대한 대화, 자신의 이야기를 노래로 옮긴 앙꼬의 토크와 소규모 콘서트가 이어집니다.

만화 밖 현실로 소풍 가기 - 김성희 & 박승희

초대 만화가 김성희와 미술교육 경험이 풍부한 작가 박승희가 공동 강사로 나서 7~11세의 어린이 참여자들과 함께 직접 풀과 풀 근방 동네를 탐험하고 만화로 그 과정을 기록하는 사생 프로그램입니다.

풀 아카이브와 만화 - 고영일

사적 이야기와 시대적 증언을 교차하는 고영일의 만화는 시대와 사회로 인해 형성된 개인들 간의 오해와 미움을 견어내고자 하는 목소리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해 하에서 풀은 만화가 고영일을 2010년 하반기 풀 아카이브 재가공 프로젝트 "아직도 낯선 그들 2"에 초대합니다.

만화 비평 토크

참여자, 만화비평가, 혹은 그 동안 만화에 관한 담론을 생산해온 이론가 등이 참여하는 토크 프로그램으로 만화가, 만화가 사회와 현실을 바라보는 시선과 그러한 관점을 작품에 반영하는 태도에 관해 논하는 자리입니다.

2010 풀 여름 프로젝트

돈 2, the 만화 : 만화로 이야기하는 작가의 돈 Money 2, the Manhwa : On Artist's Money

2010. 07. 22 목 - 08. 22 일 (32일간)

2010. 08. 13 금 - 15 일 프로젝트 휴식기

고영일, 권순영, 김성희, 김수박, 김연세, 박승희, 백종민, 아нім, 앙꼬, 믹스라이스 외 10인 이상의 만화가와 미술작가

Ko Young Il, Kwon Soon Young, Kim Sung-hee, Kim Subak, Kim Yeon-se, Park Seung Hee, Beck Jong-min, Anim, Ancco, mixrice and other artists and cartoonists

기획_강동형, 김진주

Curated by Kang Dong-hyeong, Kim Jinjoo

본 프로젝트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시각예술창작지원 및 전시공간지원사업 기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The project is supported by the Arts Council Korea.

Pool 풀 Arts Council Korea



Money 2, the Manhwa (Comics)

In 2005 Pool has organized an exhibition entitled <Money>, which had approached the issue of 'money' in the lives of artists. Passing another five years after that, art space pool proposes in <Money 2, the Comics> to address the question of money again, in its relation to much more specified mode of artistic conception and an intrinsic mechanism of contemporary comics practices today. Rather than repeating a sociological examination or econo-political criticism on something abstract called 'capital' in neoliberal global order, <Money 2, the Comics> responds to the tangible subject of artists' money and addresses its actual position and influence it has in the process of perceiving, conceiving and executing art practices. This project therefore is designed as an ongoing four parallel workshops which manifest particular aspects of artists' experience of money as practice itself. Money is not just a means of sustaining a physical survival of an individual, but a confining and repressive agent that pre-dominates the scope and capacity of creative ideas today. Transmitted in the circuit of market and systems, money demands that an individual artist should play the role of consumer in researching even small pieces of information and resources. Even after succeeding in materializing an 'artwork', many of which are remained undistributed due to the censorship by the market. In spite of, or because of this surplus of artworks in stock, an expectation about an individual artist's creative originality is getting strengthened as a selection criterion in the survival of the fittest. Then, is an innate mechanism of art conception itself fit in this money order? Could we visually suggest an indefinable logic of 'visual thinking' to be creative and even productive? This project finds one of the possible ways in comics.

In 'Understanding Comics: The Invisible Art', the cartoonist Scott McCloud said that 'closure is essential to live in this imperfect world.' The word, 'closure,' which is translated ironically as 'imagination' in Korean, originally means 'closed or shuts'. The language of comics constantly follows the rhythm of omission, separating, cutting, emptying, pausing, resting and rebooting, just like switching off and on due to power overload. The process of perceiving is instantly transferred to an action in each frame while undergoing a structural design like expansion, delaying, extension, reduction and segmentation. This project notes the image, the language and the narrative are able to play outside the pressure of money at least right at this point. If the comics are still a secret love of cultural producers, it is because of the charm generated from the fast proceeding of instant editing and infinite imagination we can fill in-between each frame. Comics make the whole from the perceived fragments throughout such active engagement with imagination. The readers who puzzle out the comics need for a constant and multi-dimensional communication. The world of comics is a constantly mobile interface zone operated by the mechanism of irrational, non-lingual imagination. Then, wouldn't we be able to suspect an alternative way of creative production tentatively unbound from the pressure of money in the language of comics?

Workshops

This project, therefore involves series of workshops inviting audiences, cartoonists, visual artists and theorists in the project space. The workshop contains varied programs such as interviewing cartoonists, the cartoonist class, comics picnic with children, comics critical talk program, etc. The project space becomes a stage for 'actors' to expand their work and to develop interrelationship with 'players' for examining another form of inventive stories. Program details will be posted on the website, www.altpool.org.

Talk with a cartoonist - Lee Hee-Jae

Lee Hee-Jae, the realism cartoonist of Korea will be invited to talk about his comics that reflect upon the reality. Introducing his short strips from the <Billboard Stars> and sketches of street protestors during the Candle Vigil 2008, this talk will provide a rare chance to meet the legendary cartoonist who pursues his questions until present.

Cartoonist workroom & mini concert-Ancco

Ancco, a cartoonist is invited to have a show & tell class in which she shares her process of working with fellow cartoonists and visual artists. As a way to converse on the subject of money, comics and reality, she will speak in comics and 'song' her stories as well.

Going picnics out of comics - Kim Sung-hee & Park Sueng Hee

This workshop is designed to engage children aged 7-11 in a creative exercise to identify the things in local surroundings of art space pool and visualize them in comics. The invited cartoonists, Kim Sung-hee and Park Sueng-hee are both cartoonists as well as experienced educators. This workshop is dedicated to experiment flexible ways of dealing with children's creative sensibility and spontaneous responses in action.

Pool Archive and Comics - Ko Young-il

Ko Young-il, a cartoonist tries to open up the possibility of critical point of view generated from the personal life throughout his comics-activity. In his comics, he features the main character and invites others into the frames. His narratives are developed to trace people's particular memory with both pleasure and hardships. What his story compiles is the intersection at social testimony and private affairs, which consequently becomes the voice to erase misunderstanding and hatred intensely developed over the historical era. pool invites Ko for its second archive project in 2010. His research process will start from this project, and the results expectedly come out by this fall as a separate workshop programs or comics.

Manhwa (Comics) Critical Talk

This talk program is for participating artists, comics critics, sociologists and economists who produce various discourses about comics. Discussing the attitude upon the comics, comics activity and view points from the society, a few key points around the comics will be made. The talk is expected to access some of comics genres including 'Private Comics' and 'Report Comics' as well.